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을 분별 못하는 기독교인들

격압유룩에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인불인천신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늘의 신이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 있는 밀실에서 연단을 받고 나왔는데 격압유룩에는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서 삼신이 역할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삼신할머니라고 그랬지? 삼신이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서 역할을 한다고 쓰여 있는 겁니다. 격압유룩에 뚜렷하게 쓰여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 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역사를 하나 하면 인간들이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의 말씀이요?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지존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자기만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요? 그 말이 성경적인 말이요, 비성경적인 말이요? 예수는 비성경적인 말을 한 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 "공중권세 잡은 신이 악신이다" 악신이 마귀 신이요? 그러니까 하늘쪽대기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도 "공중신은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면 마귀요? 그래서 하늘에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사전을 펴는 곳에 가보면 예수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다, 땅을 쳐다보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는 거요? 마귀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니 마귀에게 '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람은 신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식인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신이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마귀의 영에게 점령당하여 성경에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죠? 성경 말은 영적 말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영적 말이니까 선악과가 영적인 과일이 되는 거요? 영적 과일이 영이요? 영이 바로 신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이 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영이라면 마음이 신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는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노라 하는 기독교에서는 이걸 보고도 알아요, 몰라요? 그 성경구절이 있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신들이니." 너희들은 사람들을 가리킨 거요? 사람들은 다 신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주인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사람더러 신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진리

신분별을 잘못하는 기독교인들

오늘날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지 신학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든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신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공중하늘에는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신은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구세주 조희성님

산 자의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또 민수기 27장 16절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하나님이요? 말은 하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육체의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신이고 사람의 몸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기독교는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사람의 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피로써 살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살의 세포가 육신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오장육부도 피로써 만들어지는 겁니다. 피로써 사람의 뼈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하나님이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의 피는 사람의 마음과 일치되는 물질이요, 물질로서는 피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체로서는 마음을 가리키

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영이라고 했던 겁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 쓰여 있죠?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마음 자체가 피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쓰여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 피라고 했던 것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요?

몸과 영이 따로 있지 않고 일체다

그래서 성경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인간의 몸이 따로 있고 인간의 마음인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일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틀림없죠? 이 나무의 생명도 하나님 틀림없죠? 이 꽃의 살아

있는 생명도 하나님 틀림없죠? 이와 같이 나무나 풀은 어느 한 시한이 되면 다 죽죠? 사람 몸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질이 공기 속에 있는데 세상 과학에서는 산소를 마시고 사람이 산다고 하지만 실은 코로 공기 속에 있는 생명의 물질을 취득을 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과학자들이 이렇게 무식합니다. 여러분들, 과학 박사들도 많고 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이 과학자들을 무시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욕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고 격압유룩에도 쓰여 있고 불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사람이 신이라고 했고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왜 되느냐?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해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조상이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 피로 인간의 후손들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전부 아담과 해와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고 믿어 가지고 하나님 자식과 하나님 간의 이간질을 붙이는 바람에 사람을 흉으로 만들어서 창조를 했다고 성경에다가 적어 놓은 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흉으로 만들어진 몸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있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보통 많죠?

사실은 사람처럼 미련하고 사람처럼 어리석은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제일 많이 깨달았다는 과학자들도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만물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건물이 버티고 서 있어요, 저절로 서 있어요? 이 건물을 버티고 있는 물질 속에 생명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세상 과학자들에게 얘기하면 콧방귀 먼저 겁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뭘 알아야 공정을 하죠.

중성자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전자가 회전한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데, 원소 속에 핵이 있는데 그 핵에는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전자가 뱅뱅 뱅뱅 돌아갑니다. 그걸 말해서 원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마이너스 전자가 뱅뱅 뱅뱅 돌아가고 있는 것이 저절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저절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게 이치에 안 맞죠?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면 그건 말이 맞죠? 사실은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해야 그 논리가 정확한 조리 있는 논리이고 과학적인 논리가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까지 대답을 해주는 자가 진짜 생명이요? 돌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까지도 알아야 하는 사람이요? 마이너스 전자가 중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뱅뱅 뱅뱅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돌아가는 힘이 중성자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바이트론(Biotron)입니다. 물질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은 중성자의 영이 죽는 순간 썩는 겁니다. 바이트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질이 죽을 때에 그 물질은 썩어 문드러지고 죽을 때에 이런 건물도 무너지는 겁니다.*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5) 유다의 비행(卑行) - 1

헤브론 마브레 천막에서 서북쪽으로 20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아둘람 성읍까지 올라온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나 자신이 찾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푸쟁이 노릇을 하는 히라는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찾은 그 여인은 미모가 뛰어나 성읍의 남자들이 서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거늘, 이미 남편을 둔 아내가 되었노라."

히라의 말에 실망한 유다는 아둘람 성읍의 주막에 가서 술을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 수이라 하는 자의 딸이 창녀로 가장하여 유다를 유혹하니, 유다가 그녀를 취하여 동침하였습니다. 그



유다와 아둘람 사람 히라

리하여 유다와 통간한 수이라의 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유다는 그 아이의 이름을 '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 '오난'을 낳고 또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았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이라의 딸과 통간하는 유다

《3장 야곱의 하나님》

(15) 유다의 비행(卑行)

히라라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이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는 세 아이들을 낳은 후 푸쟁이 히라를 따라 아둘람에서 서북 7킬로미터쯤에 있는 거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푸쟁이 히라는 유다의 재물을 탐하였고 유다에게 이웃마을 거십에 예쁜 창녀들이 많다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바람이 많은 유다는 히라의 매춘알선에 만족하였고 푸쟁이 히라를 친구처럼 친하게 사귀었습니다.

거십으로 이주해온 유다는 많은 창녀들과 향락에 빠졌고 유다 자신을 가장 즐겁게 해준 뉘나 출신의 창녀 다발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만이들 엘의 아내가 되게 하였습니다. 다발은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 들려있는 음녀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다발은 남편 엘의 기력을 다하게 하여 일찍 죽게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음욕을 품었습니다. 다발은 나에게 오난을 주어 당신의 대를 잇게 하라"하고 유다에게 간교스럽게 말했습니다.

술주정뱅이에게다 오입쟁이 유다는 며느리 다발이가 시아버지를 진정 위하는 줄 알고 둘째 아들 오난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오난아,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¹

오난은 더러운 창녀 다발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의 침상에 올라오는 다발을 밀치며 솟구각으로서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악녀 다발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교활하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습니다.

"오난이 당신의 며느리를 끌어안고 탐하기만 하고 씨를 배에 바락에 흘립니다. 그가 형의 이름을 이을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발의 말을 그대로 믿고 분개하더니, 곧바로 아들 오난의 침소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오난의 목을 졸라 질식사시켜 숨지게 했습니다.²

¹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에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여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수훈(嫂婚)이 있었다.

² 훗날 유대왕국을 건설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되는 유다의 경솔하고 파렴치한 전력(前歷)을 감추기 위해, 유다가 그의 아들 오난을 목졸라 죽인 사실조차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이시니(창38:10)"라고 성경을 조작하여 하나님을 사람 죽이는 백성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창세기 38장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이를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와 동침한 다발이 증표(證憑)를 요구함

유다가 둘째 아이를 살해하는 모습을 지켜본 며느리는 짐짓 놀라는 척하였습니다. 다발은 겉으로 오난의 죽음을 애도해하고 또 일부러 아픈 척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발의 꾀병에 속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네 친정집에 가서 몸조리 잘하라"

과부 다발은 거십(또는 악십)을 떠나 북쪽 13킬로미터쯤에 있는 뉘나에 갔습니다. 뉘나는 창녀들이 몰려 사는 곳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다는 다발을 연모했지만 자신의 며느리에게 동정하려는 일만은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도 전에 죽으면 영영 자신의 대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염려가 떠나지 않았는데, 아나나 다를까 셀라마저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다의 아내 수이라의 딸까지 죽었습니다.

유다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 히라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다 말하고 동침하고도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을 받지 않는 방도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푸쟁이 히라는 자신에게 좋은 계획이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히라와 함께 뉘나로 올라갔습니다.

히라는 다발을 만나 말했습니다. "오늘밤에 너의 침소에서 시아버지 유다의 동침을 허락하라. 네가 유다의 아이를 얻게 되면 그의 재산은 정녕 너에게 상속되리니"

아무리 계집질에 이골이 난 유다라 할 지라도 차마 맹생맹성한 정심으로 며느리를 겁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며느리 집을 찾아가서 다발에게 탐버들었습니다.

영리한 다발은 그 시아버지 유다한테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도장과 도장 끈 그리고 손에 갖고 계신 지팡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와 함께 동침한 증표로 삼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